

여성실직가장돕기 대바자, 9억5천만원 기금 모아



▲ 사랑의 대바자 개막 테이프커팅 (왼쪽부터) 송도균 SBS사장, 김갑현 사랑의 대바자 준비위원장, 박영숙 사랑의 친구들 총재, 이희호 여사, 파멜라 브라운 주한영국대사부인, 지은희 여성연합 대표, 이인원 롯데백화점 사장.

실직 여성가장을 돕기 위해 사랑의 친구들이 마련한 사랑의 바자가 9억5천만원 정도의 모금을 성과로 남기면서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전점을 통해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대바자,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한 여성인력채용박람회, 서울방송의 ARS 모금으로 구성됐다.

대바자에는 명예총재인 이희호 여사의 휘호를 비롯해, 김종필 총리, 박태준 자민련 총재, 고건 서울시장, 장관, 국회의원 등 저명인사들이 소장품을 기증해 기금 마련에 큰 몫을 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모두 소

장품을 기증해 눈길을 끌었다. 김옥숙 씨는 동양화를 이순자 씨는 대한민국 역대 주화를 기증했고, 프란체스카 여사 명의로는 목판벽걸이를 기증했다. 연예인을 비롯한 명사 기증품 판매액은 3억9천여만원, 롯데백화점으로부터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롯데 마그넷 월드점에서 열린 여성인력채용박람회에서는 1천5백여 명이 취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방송의 ARS를 통해서도 2억6천4백여 만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박영숙 사랑의 친구들 총재는 "준비기간이 촉박했던 데에 비해서는 롯데백화점과 한국경제신문사의 준비가 치밀해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영숙 총재는 수익금 지출 원칙에 대해 회의를 통해서 여성실직가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사랑의 친구들은 "정부가 하는 일의 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사랑의 친구들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받았다.

▼ 모델협회 소속 모델과 사랑의 친구들 회원들이 판매원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다.



기증품 제공 인사

이희호 대통령부인 / 김옥숙 전 대통령부인/ 이순자 전 대통령부인/ 김종필 국무총리/ 고건 서울시장/ 김성훈 농림부 장관/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재 행자부 장관/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이수동 아태재단 이사/ 권노갑 국민회의 고문/ 김원길 국회의원/ 최재승 국회의원/ 정희경 국회의원/ 박용정 한국경제신문 사장/ 양성철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심대평 충남도지사/ 정몽준 국회의원/ 이의근 경북도지사/ 고재유 광주시장/ 김충조 국회의원/ 박정수 국회의원/ 홍선기 대전시장/ 장재식 국회의원/ 김성곤 국회의원/ 한덕수 외교통상고급보좌관/ 한화갑 국민회의 원내총무/ 한영애 국회의원/ 임창열 경기도지사/ 김희선 정당인/ 문희갑 대구시장/ 이연숙 전 제2정무장관/ 조한철 국회의원/ 김해규 경남도지사/ 임동원 외교안보 수석/ 이경숙 숙명여대총장/ 장상 이화여대 총장/ 윤장순 사랑의 친구들 이사/ 박찬석 경북대 총장/ 조송자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 김갑현 사랑의 친구들 이사/ 주은영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 이운자 주부교실중앙회 회장/ 김인숙 사랑의 친구들 고문/ 조경철 박사/ 장욱자 박태준 자민련 총재부인/ 조용기 목사/ 이인원 롯데백화점 사장/ 서호석 산업인력관리공단 감사/ 서덕규 대구은행장/ 엄대우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정승열 한국도로공사 사장/ 윤미자(주)중문관광어촌대표이사/ 구정모 대구백화점 사장/ 포항제철/ 김종철 연합뉴스 사장/ 윤세영 SBS사장/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 장명식 한국전력공사 사장/ 민병준 한국광고협회 사장/ 조남용 화가/ 진말숙 문인화가/ 한상수 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장주원 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박병간 화가/ 김동학·김희진 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진종만 한국무형문화재 운영위원장/ 정준모 한국무형문화재 이사장/ 이응구/ 아태재단/ 최재욱 환경부장관/ 이은구/ 원숙현/ 한종희 SBS아나운서/ 구성애 성교육 강사/ 박영숙 사랑의 친구들 총재 등(무순)